혜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㊸ 여래신력품 제21

부처님의 신통력

모든 가르침은 진리에 바탕 둔 것
자비는 너 나없는 일체감의 극치

이 21장의 장명[品名]인 '여래신력(如來神力)'이란 여래의 신통력이라는 의미이다. 그것이 장명으로 된 것은, 부처님께서 그 자리에 모인 문수사리 등 한량없는 보살들과 1천 개의 세계를 부수어 가루로 만든 수[微塵數]에 이르는 땅에서 솟아 나온[地涌] 보살들과 모든 대중들 앞에서 부처님께서 멸도하신 후에 <법화경>을 널리 유통할 것을 위촉하기 위해 열 가지의 신통력을 보이신 것이다.

여래의 열 가지 큰 신통력(大神力), 즉 열 가지의 신비한 상서로운 모습[瑞相]은 다음과 같다.

(1)넓고 긴 혀를 내다[出長廣舌]… 이 신비한 현상에는 2문신1(二門信一)이 나타나 있다. 즉 2문(二門)이란 적문(迹門)과 본문(本門)을 가리키는데, 처음 석존께서는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부처님의 입장에서 사바세계 사람들의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셨다[迹門]. 그런데 뒤에 와서는 원래 자신은 우주의 대생명이라는 영원한 부처님[無量壽佛]이라고 말하고 그 우주가 처음 생겼을 때부터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無始無終]의 근본불(根本佛)에 의해서 살려지고 있다는 자각을 확립하는 것이 참다운 구제라고 가르쳤다[本門]. 그런데 석존은 구원실성(久遠實成)의 부처님, 즉 모든 것을 살려주는 힘이 하나의 현상으로써 중생 제도를 위해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모습이므로 인간 석가모니여래와 구원의 근본 부처님과의 사이에는 본래 구별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근본의 부처님과 적불은 결국 하나이다. <법화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라고 하기 때문에 '2문신1(二門信一)'이라 한다.

(2)털구멍에서 빛을 발하다[毛孔放光]… 이를 2문이1(二門理一)이라 하는데, 즉 적문에서 설한 것과 본문에서 설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같은 진실에 바탕을 둔 것이라는 뜻이다. 같은 진리를 전자는 철학적으로, 후자는 종교적으로 설한 것에 불과하다. 이것을 '2문이1'이라 하고 부처님의 온몸에서 나온 여러 가지 다른 색깔이 시방세계의 모든 암흑을 완전히 소멸시켜 버린 이 상서로운 모습에는 이와 같은 깊은 뜻이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무량 무수한 빛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한량없이 무수한 여러 가르침을 말하며, 그 빛이 널리 시방세계를 비추었다는 것은 어떠한 가르침도 진리에 바탕을 둔 것이므로 온갖 미혹을 소멸시키는 것임을 상징하고 있다.

(3)동시에 기침소리를 내다[一時謦咳]… 2문교일(二門敎一), 즉 부처님 일대(一代)의 설법은 '3승즉1불승(三乘卽一佛乘)'으로 석존께서는 처음은 방편의 가르침을 설했다. 방편의 가르침도 진리임에는 틀림없으며 낮은 가르침도 아니다. 다만 최후의 진리를 설하기 위한 과정이었음에 불과할 뿐, 저마다 소중한 진리이며 고마운 가르침이다. 이것을 <법화경>의 설법에 입각해서 말하면 '2문교1'이 된다. 적문의 가르침은 본문의 가르침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하는 전제이며 필수적인 과정이다. 예를 들면 본문이 곱셈이라면 적문은 덧셈이라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2곱하기 3은 6이라는 곱셈을 어린아이에게 처음부터 가르치면 빨리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우선 처음에 덧셈을 가르쳐 2더하기 2더하기 2는 6이 되는 이유를 가르친다. 그러면 2곱하기 3이란 2를 세 번 더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하게 된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처음부터 2×3은 6이라는 구구단을 무조건 암기시킨다면 결코 참으로 곱셈을 안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종교도 이와 같아서 하나하나 더하여 가서 답을 내는 덧셈도 진리인 것처럼 한 걸음 한 걸음 수행을 쌓아 하나하나 마음의 미혹을 없애가는 가르침도 바른 가르침에 틀림없다. 그러므로 <법화경>의 전반(前半)에서 설해진 적문의 가르침과 후반(後半)에서 설한 본문의 가르침은 서로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같은 가르침을 양면에서 본 것이다. 결국은 하나의 구제[濟度]로 귀착시키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2문교1'이라는 진실이 상징되어 있다고 예로부터 해석되고 있다.

(4)함께 손가락을 튕기다[俱共彈指]… 이것은 엄지손가락과 가운데 손가락 끝을 모았다가 그것을 힘껏 튕겨서 소리를 내는 것을 말한다. "알았습니다" 또는 "틀림없이 약속합니다"라고 하는 인도 사람들의 습관 중의 하나이다. 그렇다면 석가모니불을 비롯하여 모든 부처님들이 일제히 손가락을 튕겼다는 것은 무엇을 약속했으며 무엇을 알았다고 한 것인가. 바로 "모두 함께 이 가르침을 설해 넓히자" 라고 하는 것이었으니, 이것은 어찌할 수 없는 중생 제도의 자비심에서 이렇게 약속을 한 것이겠지만 그와 같은 자비심은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이것을 현대적으로 말하면 자타(自他) 일체감(一體感)의 극치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법화경>의 가르침도 모두 이 자타 일체라는 것에 귀일한다.

'임제록' 통한 선 공부 ㊳

남에게 속지 말라

그대 서 있는 그곳이 본래 자리

도 닦는 이들이여! 그대들이 여법(如法)한 견해를 얻고자 한다면, 다만 남에게 속지만 말라. 그러므로 안에서나 밖에서나 만나는 것은 모조리 즉시 즉시 죽여야 한다.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를 만나면 조사를 죽이고, 나한을 만나면 나한을 죽이고, 부모를 만나면 부모를 죽이고, 권속을 만나면 권속을 죽여야, 비로소 해탈하여 사물에 구속받지 않고 벗어나 자재(自在)하게 된다. 그러나 여러 곳에서 도를 배우는 자들로서 사물에 의지하지 않고 나타난 자는 없었다. 나는 여기에서 부수어 없애는 것을 일삼아 하는데, 손 위에서 나타나면 손 위에서 부수고, 입 속에서 나타나면 입 속에서 부수고, 눈 속에서 나타나면 눈 속에서 부순다. 그러나 그대들은 단 한 사람도 홀로 벗어나온 자는 없었고, 모두가 저 옛 사람들의 부질없는 기연과 경계를 따라다닐 뿐이었다.

지금 내가 발 딛고 있는 자리, 지금 내가 손을 움직이고 있는 자리, 지금 내 눈길이 가는 자리, 내 의식이 살아 움직이고 있는 자리, 조금의 요동이 없이 확고부동한 자리, 티끌만한 생각도 들어 있지 않은 자리, 나의 육체와 정신이 뿌리박고 있는 자리, 바로 이 자리에 모든 것들이 돌아와 자취를 감추고 사라져 버린다.

부처라고 말해 보라, 바로 이 자리에서 소리가 나타나고 있다. 조사라는 글을 읽어 보라, 바로 이 자리에서 글이 나타나고 있다. 나한이라고 생각해 보라, 바로 이 자리에서 생각이 나타나고 있다. 권속을 바라 보라, 바로 이 자리에서 권속이 나타나고 있다. 해탈이라고 느껴 보라, 바로 이 자리에서 느낌이 나타나고 있다. 손에 사물을 붙잡아 보라, 바로 이 자리에서 손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입 속에 음식물을 넣고 씹어 보라, 바로 이 자리에서 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아무리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고 아무리 여러 사물들이 경험되더라도, 모두가 이 자리에 나타나고 있는 것일 뿐이다. 그러면 이 자리는 어디에 있는가? 이 자리는 정해진 바 없다. 정해진 자리가 없으므로 없는 곳도 없다.

그러므로 소리가 나면 바로 그 소리에 이 자리가 있고, 색깔이 보이면 바로 그 색깔에 이 자리가 있고, 생각이 일어나면 바로 그 생각에 이 자리가 있고, 눈길이 가면 바로 그 눈길에 이 자리가 있고, 느낌이 일어나면 바로 그 느낌에 이 자리가 있고, 손으로 붙잡으면 바로 그 움직임에 이 자리가 있고, 입으로 씹으면 바로 그 씹는 곳에 이 자리가 있다.

따라서 나는 이 자리를 떠날 수가 없다. 언제나 어디서나 이 자리에 있을 뿐이다. 장소는 변하고 시간은 바뀌지만 이 자리는 변화도 바뀜도 없다. 이 변함 없는 자리야말로 진실한 실상(實相)이며, 참으로 여여(如如)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이며, 나의 본래 존재요 본래 모습이다. 이 자리는 손 한 번 움직이고, 발 한 번 내딛고, 입 한 번 얼고, 숨 한 번 쉬고, 생각 한 번 일으키고, 눈길 한 번 주는 하나 하나에 빠짐 없이 드러나 있다.

이제 한 번 주의를 기울여 잘 살펴보라. 이 자리가 어디에 있는지? 끈기를 가지고 시간 나는 대로 이 자리를 살펴보라. 온 관심을 기울여 정성껏 살펴보라. 진실하고 진지하게 살펴보라. 조급하게 생각을 앞세워 빠른 효과를 보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는 자세로 끈기 있게 살펴보라.

참으로 진지하게 목말라 한다면, 문득 이 자리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이 자리를 확인하는 바로 그 순간 모든 생각이 저절로 빛을 잃어버릴 것이고 집착이 내려놓아질 것이고 끄달림이 사라져 버릴 것이다. 이 자리를 확인하는 그 순간은 그저 밝은 빛 속에 있을 뿐으로 어떤 것도 분간되지 않을 것이다.

김태완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선생의 <금강경> 특강

1,2월 부산무심선원 매주 토요일, 수원경기불교문화원 2,4주 일요일 051-515-7226(무심선원).011-9520-0054(이정화) http //www mindfree net/

박영재 교수의

과학과 불교

㉖

승패불이(勝敗不二)

승부욕 떠나 서로 화합하면 마음 건강
상호비방 아닌 건전한 선거 정착되길

십여 년 전 대학가에서는 선거열풍이 불어 총장 직선뿐만 아니라 단과대학 학장도 직선으로 선출하는 분위기가 주를 이룬 적이 있다. 그 때 기초과학을 전공하는 교수들은 대체로 자기 일(교육과 연구)에 바빠 학장 보직에는 별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필자가 아는 한 국립대의 경우, 시행 초기 분위기에 휩쓸려 두 후보 진영간에 득표 활동을 심도 있게 한 것까지는 좋았으나 평소에 친하게 지내던 점잖은 분들이 서로 다른 후보를 지지하다 선거가 끝난 후, 꽤 오랫동안 서로 말도 하지 않고 지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있다.

냉정히 살펴보면 학장이란 보직은 단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애정을 가지고 전념해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적임자인가가 중요한 선출 기준인 것이다. 선출된 학장은 임기 동안 소속 교수들과 화합해 단과대학의 발전을 위해 온힘을 다하면 그만인 것으로 이것이 바로 승패불이(勝敗不二)의 경계인 것이다. 다행이 요즈음 들리는 소식에 의하면 건전한 선거 풍토가 잘 정착되고 있는 대학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선거 분위기가 우리나라 전체로 잘 뿌리내려, 종내에는 상호비방이 아닌 건전한 정책대결 및 결과에 승복하는 대통령 선거 문화 정착에까지 크게 기여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한편 이와 관련되어 무문관 제42칙에 '여자출정(女子出定)'이란 공안이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세존이 계신 곳에 문수(文殊)가 와 보니 한 여인이 세존 가까운 곳에서 선정에 들어 있었다. 문수가 세존께 물었다. "어째서 여인은 세존 가까이 갈 수 있고, 나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것입니까?" "네가 직접 이 여인을 선정에서 깨워 네 스스로 물어라."라고 세존이 답했다. 그러자 문수가 그의 신통력을 다 부려보았으나, 그녀를 선정에서 깨어나게 할 수가 없었다. 세존께서, "비록 백천(百千)의 문수가 와도 이 여인을 선정에서 깨어나게 할 수는 없다. 망명(罔明) 보살이 있는데 그가 여인을 선정으로부터 깨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곧 망명이 땅에서 솟아 나와서 세존에게 예배하니, 세존이 여인을 선정에서 깨우도록 그에게 명하자, 망명이 여인의 앞으로 나가 한 번 손가락을 튕기니 여인이 선정에서 깨어났다.' 이 공안의 요체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는 자고로 동양에서는 여인은 번뇌가 많고 업장이 깊은 존재로 여겨 왔는데, 어째서 여인은 세존 가까이 있을 수 있는데, 칠불(七佛)의 스승인 문수는 세존 가까이 갈 수 없는가? 이다. 두 번째는 문수는 무슨 까닭으로 여인을 선정으로부터 깨울 수 없었으나, 보살 수행의 처음 단계에 있는 망명은 쉽게 여인을 선정에서 깨어나게 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무문 선사의 승패불이를 노래한 아래 게송을 잘 음미해보시기 바란다.

깨우고 깨우지 못함은 그들의 자유
도깨비탈을 쓰고 벌린 한바탕의 가면놀이
(이기는 쪽도 풍류로우나) 지는 쪽 또한 풍류롭지 않은가! 서강대 물리학과

yjpark@ccs.sogang.ac.kr

그림 · 문병성

수맥으로 부터 건강을 지켜드립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맥 · 지전류 · 지자기의 유해파로 인해 만성피로, 불면증, 두통, 목 · 어깨결림, 우울증, 악몽, 관절 및 근육통 순환기 장애등이 발생합니다. 수험생이 집중력을 상실하기도 합니다.

또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할때 손끝이 저리거나 눈 · 머리가 아프고 얼굴에 열이 나는 것은 전자파 때문입니다.

바로 이런 분들에게 유해파를 차단시켜 건강을 회복시켜 드립니다.

특히 세대주의 이름과 번지만 알면 자택 · 사무실 · 조상묘소의 수맥 · 지자기 · 지전류 유무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양택과 음택을 원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온천과 지하수도 찾아드립니다.

● 스님들께는 실비로 차폐해 드립니다.
● 유해파 차단은 직접 현장에 가서 해 드리며 휴대용 신개발품도 널리 이용되고 있습니다.

지기진단 수맥연구가 이 기 일
☎ 053) 255-7370
011)9596-4848

TDP神燈-생명의 빛!!
중국의 과학이 낳은 또 하나의 기적!!!

신등이란? 특정전자기파, 생체에너지파, 수퍼원적외선 등 방사파장을 신체에 동시 투사하여 인체의 면역기계와 순환기계, 소화기계, 등 생체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한편으로 열에 약한 병원체를 무력화시킴으로써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의료기입니다.

모든 가정마다 TDP치료기를 1대씩... – 온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주는 가정상비용 의료기

金賞

☆ 각종 참고자료 – 4,300여명의 환자별 임상실험 통계
미국 FDA 검증(No K875052)
한국 의약품안전청 허가(제수허 01-306호)

TDP 신등은 이런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드립니다
◆항상 속이 더부룩한 소화불량과 악성 변비, 장염으로 고생하시는 분
◆관절염 증상으로 허리, 무릎, 팔목 등 관절통증에 시달리는 분
◆혈액순환 장애로 인한 성인병에 시달리는 분
◆신장기능 장애로 손, 발, 얼굴 부종이 잦고 이뇨장애가 있는 분
◆고질적인 치질, 치루, 탈항으로 고생하는 분
◆부인병 – 냉증, 세균성 염증, 생리불순, 생리통을 가지신 분
◆자주 재발되는 피부 트러블을 가지신 분
◆전립선 기능장애로 신경이 쓰이는 분

유고 국제 박람회 금상 수상, 벨기에 부뤼셀 만국방람회 은상 수상
◆중국 국립의료원, 세계정상급 의학자 200명의 실험자료
◆전세계 수출(물리치료기-병원용, 가정용)
◆한국-1995년도 보건복지부 수입허가 이후 국내 각 종합병원, 한방병원, 보건소 등 200여 의료기관에서 설치 사용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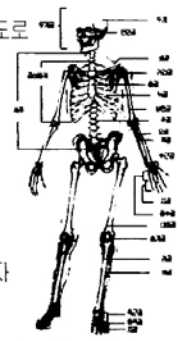
건강21 02)457-2831~2 (자료책자 무료우송)

관 절 염
↓
자생환(自生丸)

관절염 류마티스 초기 퇴행성관절염 혈액순환장애 디스크 → 약간의 활동이나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이 쑤시고 저리는 경우 자생환(自生丸)을 복용후 1개월부터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남

선천성 냉체 산후바람 낭습진 → 자생환(自生丸)을 2~3주만 복용해도 효과가 나타남

참고 - 심각할 정도로 나쁜 상태는 별도로 상담바랍니다



"자생환(自生丸)의 뛰어난 효과 때문에 입에서 입으로 소개되어 많은 고객으로부터 주문 및 문의가 쇄도"

▸ 주의사항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임산부, 음주전후에 복용금지

※ 발명자 : 민속의학자 권재우 옹(경남 산청)

주문 및 상담전화 (055)972-4054

한방을 선도하는 기업 骨仁製藥(株)

실기훈련 위주의
說法방법연수

단시일내에 대법사가 될 수 있는 길

부처님의 오종설법, 개차법, 대기설법 비유법등을 원론적 기준으로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성공적인 법회운영을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와 자료의 재구성능력이 확보되야 합니다.

과목 ● 설법방법론, 실기훈련, 설득, 상담기법
● 음성, 태도, 修辭, 원고작성법, 회의진행법 등

연수안내
▶기 간 : 2개월 과정 ※수시접수
▶강 의 : 매주 목요일 오후 3시 ~ 5시
▶장 소 : 본 연수원 ▶지도교수 : 金哲會 박사
※출장 개인지도 가능합니다※

◆문의 및 신청◆
☎ 02)747-1567 / 02)737-1567
H · P 011)248-1567

韓國說法研修院
서울 종로구 종로 3가 20(영흥 B/D 4F)